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권명아 지음 | 책세상 | 512쪽 | 값 25,000원



식민지 조선엔 남성들이 살았다. 정치와 경제, 제도적 측면에서 이들 남성은 파시즘 체제를 작동시키는 주체이자 객체라고 알려졌다. 그에 비해 여성은 위안부로 끌려가는 등 단지 힘없는 피해자로 그려졌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 이 책은 여성에게도 파시즘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역할이 강제되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총후(銃後 부인)' 담론이 형성된다. 남성이 전쟁에 간간 사이 위기에 처한 가정과 사회를 여성이 수호해야 한다는 총후부인 담론은 한편으로는 재생산과 가정의 수호에 부적합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여성을 비난하는 담론체계로 발전한다.

또 1938년을 전후하여 남방 담론이 급증한다. 남방은 자원이 무궁한 기획의 땅으로 경제적 관심이 우선 되었지만, 조선인 스스로 남방인을 아자수 그늘 아래의 '깜둥이'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일본 제국 내에서 일본인에 이어 2인자로서의 지위를 점하려는 제국의 판타지가 내면화된 것이다.

저자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향수, 약, 화장품, 레코드 등의 광고와 <매일신보> <조선일보> <경성일보> 등의 신문, 그리고 <신세기> <신시대> <총동원> 등의 잡지들이다. 저자는 민중의 일상이라는 우물에서 그들의 심층의식을 길어 올린다.

그리고 저자는 파시즘은 표면적으로 집단주의의 광기로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고립감과 불안감에 산산이 찢겨 있는 개인”들이 존재함을 역설한다. 나아가 파시즘과 자본주의의 닮은 점을 발견하고 소스라친다. 자본주의의 주요한 면모인 경쟁에서 살아남고 남을 딛고 일어서려는 욕망이 대중을 파시즘 체제로 합류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외환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 현상과 증오 범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경고한다.

신동섭 기자



《나의 육필 까세集》 김성환 엮음 | 인디북 | 323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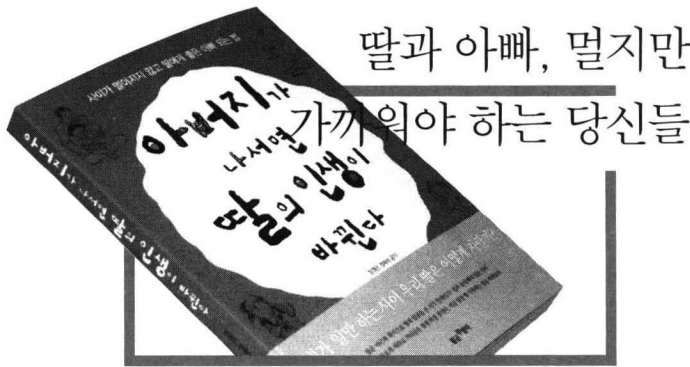
'까세집'이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우표수집가들은 우체국에서 새 우표를 판매 개시하는 날 편지봉투에 그 우표를 붙이고 그 날짜 소인을 찍어서 모으곤 한다. 이를 초일봉피라고 부르며 그 우표에 연관된 그림을 봉투 한 모퉁이에 그려 넣어 '우표 까세'라 부른다.

엮은이 김성환 화백은 1960년대 초부터 우표 수집을 시작했는데, 한때 친분을 맺었던 노화백들이 세월과 함께 떠나자 초일봉피 까세집을 수집해서 그들과의 인연의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하지만 수집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다. 운 좋게 쉽게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몇 달이 지나서 회수되는 경우도 있었고, 수집을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어렵게 모은 수집품이 가장 오랜 사랑을 받는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고, 울적할 때나 힘들 때 수집품을 펼치고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시름이 사라지곤 했다. 책에는 엮은이가 그림을 수집하면서 느낀 회노애락과 화백들에 얽힌 애뜻한 사연들이 40년의 세월과 함께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까세들의 주인 공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라, 그들이 남긴 소박한 육필의 흔적들은 남은 이들로 하여금 맘 한구석을 쓸쓸하게 만들기도 하고 생전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작은 위안이 되어주기도 한다.

전자 메일의 등장으로 우표와 편지봉투가 골동품 취급을 받는 시대에 이제는 잊혀져버린 소품들이라서 그럴까,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들의 흔적이라 그럴까... 책을 보는 내내 코끝이 찡했다. 이 작고 따스한 소품들은 바람 차고 하늘 높은 가을날, 긴 밤을 함께 보낼 좋은 벗이 되어 줄 것이다.

김지희 기자



딸과 아빠, 멀지만 가까워야 하는 당신들

《아버지가 나서면 딸의 인생이 바뀐다》

장경근, 정채기 공저 | 황금부엉이 | 216쪽 | 값 10,800원



12살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식사 중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처음 착용한 브래지어가 영 불편한 모양이다. 지나가던 아버지가 슬쩍 등을 치자 자신도 모르게 움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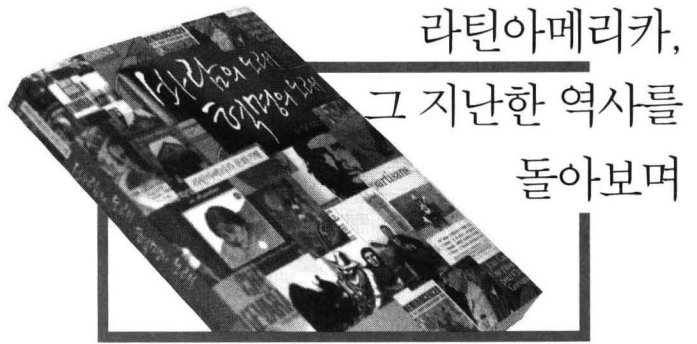
모 보험회사 광고를 보면 한참 성장의 변화를 겪는 사춘기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느껴진다. 연출된 장면이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아버지와 딸들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한다. 얼큰하게 취한 저녁, 토끼같은 자식들 불에 뽀뽀라도 할라치면 어느새 큰 딸들은 움찔하며 얼굴을 붉힌다.

‘딸사랑아버지모임’의 일원인 저자들은 아버지와 딸 사이의 틈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딸의 존재와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요즘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키워드는 아버지에게 있다고 충고한다.

딸을 기른 아버지들의 경험들을 편안히 기술한 글을 읽고 있으면 부모노릇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숨가쁘게 변하는 세대 속에서 신중문화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의 일상을 포착하는 데만도 부모들은 숨이 차다. 그런 의미로 4장에 소개된 ‘딸 아이가 여자친구만 좋아한다면’이란 꼭지는 자꾸만 다시 펼쳐 보게 되는 부분이다. 저자들은 “이성에 반대한다”는 의미의 ‘이반쪽 문화’를 설명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딸의 동성교제 심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이성교제로 이끄는 법을 알려준다. 남녀의 존재 의미부터 연애담 들려주기 등을 통해 저자들은 아빠가 해독제 역할을 해줄 것을 권한다. 무조건 ‘남자친구는 안 된다’고 혼내던 과거와는 또 다른 충고가 필요한 시기라는 걸 실감케 해주는 대목이다. 원론적인 대답만 나열하는 구태의연한 자녀교육서와는 다르다.

“멀지만 가까워야 하는 사이”, 저자들은 부녀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친구’로 명명한다. 딸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일상 실천법들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 당장 사무실 책상 앞에 메모해두면 좋겠다.

김청연 기자



라틴아메리카, 그 지난한 역사를 돌아보며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 우석균 지음 | 해나무 | 344쪽 | 값 18,000원



새로운 생을 찾아 대양을 건너온 이민자들의 애환이 서린 탱고, 침략자에게 터전을 빼앗기고 뿌리가 잘린 인디오의 슬픔이 녹아든 안데스의 민요, 폭력에 항거하는 민초들의 피맺힌 분노가 날을 세운 저항가요들은 가까이 있지 않아도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역시 제국주의의 침탈과 빈곤의 기억, 군사독재라는 역사적 경험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페루와 스페인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공부한 필자는 이번에 낸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인들의 고난했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그 가슴 아픈 삶을 응축시킨 노래들이 진정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 속에서 저자는 탱고의 발상지로 알려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구에서 시작해 끝없이 광막한 팜파와 인디오의 한이 곳곳에서 흐느끼는 마추픽추, 혁명의 함성이 드높았던 거리들을 순례한다.

인디오 혁명가 투팍 아마루의 좌절된 열망이 배어 있는 〈철새는 지나가고〉, 식민 지배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케냐의 구슬픈 멜로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노래에는 침략과 지배, 억압과 상실, 슬픔과 분노의 흔적이 역력하다.

저자는 그들의 아프지만 생생한 흔적을 찾기 위해 현지 방문을 주저하지 않았고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 안데스 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들을 찾아 노래와 문학과 역사에 남은 민초들의 한 맺힌 사연을 증언해냈다. 책에 소개된 상당수의 노래들이 ‘그저 한때의 개인적인 고통을 달래준 벗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다.

단지 쿠바 열풍과 ‘이국적인 풍물’에 끌렸다면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와 더욱 멀어질 뿐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라틴아메리카, 그 찬란한 도시가 서정적인 민요로, 격정적인 투쟁가로, 바람 같은 한 편의 시로 책 속에 살아있다.

홍이현 기자